

영농철 안정적 농업 인력 지원 나선다

전북도,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가동·농촌인력증개센터 확대 운영·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 등 총력

전북도가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과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먼저, 도와 시·군은 1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상황실은 각 부서 및 유관기관의 농업인력 수급 지원 사책을 점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계절 근로자 관리,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도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한다.

두 번째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한다.

증개센터 1개소당 8,000만원씩 총 29개소에 23억원을 지원하며, 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내국인) 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하면서 농작업자에게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농가, 고령·여성단독·소규모 농가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인력사무소와 연계를 강화하고, 증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시 작업반장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일자리 지원 조직인 도 일자리종합센터와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함께 농촌 일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셋째로,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부족한 농업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촌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 지원 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에도 힘쓴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받은 6개 시·군 46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무주군(무주농협)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며, 다른 시·군에도 파견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여성농업을 위한 농기계 작업 대행을 확대하고, 농촌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농촌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2021년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촌인력 컨트롤 타워인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도, 축산농가 보험료 자부담금 50% 지방비로 지원

전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보험료 자부담금 중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9.4% 증액된 39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892호 6,261만 2,000두 수의 가축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97.1%의 가입률을 보인 바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및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되는 내용은 축종별로 상이해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은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

는 95%, 축사 화재는 100%가 보장된다.

보험 가입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를 통해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여름철 한시적 기간(6~8월) 신규가입 및 가입금액 증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급적 5월말 이전까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농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폭염·풍수해 및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736호에서 254억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예방 철저 당부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는 15일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189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재보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손씻기·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사항과 당부를 담았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피해장애인쉼터 등은 물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도 안내해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호상 기자



정세균 총리, 수소연료전지 선도기업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수소연료전지 선도기업인 경남 청원시 범한산업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북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전북도가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지원반(이하 공동방제단)을 통한 상시 방역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

다. 전북도는 15일 24억원을 투입해 공동방제단 46개 반을 편성, 전업농 미만 규모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 4,793호와 질병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가금 거래 전통시장 93개소, 밀집 사육지역 8개소에 대해 연중 24회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재난형 가

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주위 농가 역시 방역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점을 고려해 소규모 농가를 포함, 원천적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철저한 소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가금 농가별 맞춤형 질병관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질병 검사결과 통해 컨설팅 실시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닭·오리)농가 질병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해 농가별 질병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금 질병 및 사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0개반 42명의 컨설팅 전문단을 활용해 동물위생시험소의 질병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상농가는 도내 150개소 닭·오리 사육농가로 시·군을 통해 신청한 농가 중 심사를 거쳐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발생농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검사대상질병은 닭(육계, 산란계, 종계) 11종, 오리(종오리, 육용오리) 4종으로, 농가당 연간 5회에 걸쳐 실시, 농가와 전문단에게 검사결과를 제공해 맞춤형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기에는 전염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병 발생이 많은 시기로, 농가별 질병 감염 상황 및 백신 항체 양

성률 등 방역정보를 농가 및 자문단에 신속히 제공해 효과적인 백신 해 농가별 질병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강화해 농가에서 유행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50농가 9만 건의 가금질병검사를 실시해 사람에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을 포함한 닭·오리 폐사를 유발하는 4종 150여건의 가축질병을 검출했다.

또한, 지난해에 닭전염성기관지염 바이러스 감염상황을 확인, 농가별 백신 접종 및 방역지도 등 질병차단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성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금 농가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농가별 맞춤형 질병관리를 통해 가금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해 가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